

롯데월드로 간 무주반딧불이 국내 최초 여성아웃도어 축제

아쿠아리움, 전시 이벤트 16만명 다녀가... 살아있는 반딧불이 전시·축제 홍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7. 26.~8. 31.)인 '무주반딧불이'가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과 만나고 있다. 롯데월드에 따르면 7월 26일부터 16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이벤트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7. 26.~8. 31.)인 '무주반딧불이'가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과 만나고 있다. 롯데월드에 따르면 7월 26일부터 16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이벤트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는 '살아있는 반딧불이 관찰'을 비롯해 '반딧불이의 생애 학습 코너'가 마련돼 있다. 또 제28회 무주반딧불이축제와 무주군 대표 명소들을 볼 수 있는 홍보 동영상 상영하고 고향 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릿도 비치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출항인 전 모 씨는 "아이들과 같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갔다가 우연히 고향 무주에서 온 살아있는 반딧불이와 무주반딧불이축제 홍보부스 전시물들을 함께 보게 됐다"며 "얼마나 반갑고 무주가 자랑스럽던지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무주와 무주반딧불이축제에 큰 관심이 생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군이 지난해 롯데월드와 생물 다양성 및 보전연구를 위해 맺은 업무협약의 성과로 양측은 △생물 다양성 및 보전에 관한 연구의 공동 수행과 인적교류, △연구 자원의 공동 활용, △생물 전시에 관한 기획·제작 및 교류,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동 활용, △공동 마케팅 및 전시 부스 상시 운영 등에 관해 협력할 것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무주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 정재훈 팀장은 "무주군의 반딧불이 연구에 관한 기술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완성한 전시 이벤트를 통해 무주와 무주반딧불이축제를 더불어 홍보할 수 있게 됐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전시 마지막까지 내실을 기하는 한편, 그 열기가 8월 31일부터 개최되는 무주반딧불이축제 신비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8회 무주반딧불이축제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탐사 시간 19:20~20:20, 일몰 후 1시간 전·후) 진행될 예정(인터넷 접수만 진행 <http://www.firefly.or.kr> / 1인당 1만 5천 원, 참가자 전원에게 무주사랑상품권 5천 원권 제공)이다.

반딧불이 서식지로 떠나는 신비탐사가 여의칠 않다면 축제장(무주예천문화관에 마련된 반디누리관(체험비 5천 원)) 관람을 추천한다. 이곳 '반딧불이 주제관'에서는 반딧불이의 생애부터 낮에도 살아있는 반딧불이와 만나볼 수 있다.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은 무주의 신비하고 찬란한 빛의 정원을 관타지 양상으로 표현한 공간으로,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축제 전시관'에서는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무주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으며 '자연학습체험관'에서는 지역 내 학교(안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도슨트로 참여해 방문객들과 나비의 일생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 무주군은 반딧불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과 생태계복원, 서식지(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곳, 다발생지역 5곳)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 해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연간 12회)를 진행해 자연생태학습장으로서의 청정무주를 알리고 있다.

반딧불이 연구소에서는 애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사육관리를 비롯해 운문산·늦반딧불이의 사육시험 연구, 육서종 반딧불이 먹이 사육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내에 반딧불이 생태체험관도 운영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26일 마이산 청소년야영장에서 국내 최초 여성아웃도어 축제인 '2024 리트릿 캠핑 페스티벌'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된 해당 행사는 우먼베이스캠프(WBC)의 주최로 관내의 캠핑, 트레일 러닝 등 자연을 사랑하고 아웃도어 활동을 사랑하는 여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축제에는 올해 3회째를 맞아 '나를 발견하는 여정'으로서의 모험, 원초적 야성을 깨우는 모험'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캠핑, 마이산 암마이봉 트래킹, 물놀이, 음악감상, 전시, 공연,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활동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자연과 모험을 사랑하는 여자들만의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저명한 여성 인사들이 함께하는 야성토크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해당 토크 콘서트에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개발 및 운영하는 CEO 효정, 67세의 나이로 트레일러닝에 도전해 연이어 우승 메달을 거머쥐며 각종 선수권 대회를 석권한 정순 등 아웃도어계의 여성 인물들이 다수 참여해 도전과 모험을 즐기고, 한계를 이겨내는 여성의 강인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축제에서 만난 한 참가자는 "신비로운 마이산 아래 단 3일만 열리는 여자들만의 마을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값지고 의미 있었다"며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사회적 지위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한 편견 없이 사람과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멋진 추억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아웃도어 관광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4년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수의 전국 단위 백패킹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감염취약시설 방역물품 배부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관내 감염취약시설 11곳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6종을 23일부터 30일까지 배부한다고 밝혔다.

감염취약시설에서 2명 이상의 환자 발생 시 우선 신고를 요청해 초기 대응관리 강화에 나섰으며, 시설 담당자와 상시 대응(연락)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감염관리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한해 우선 처방을 안내하고,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한 치료제 수급(재고)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유보배 의료지원과장은 "군민들이 코로나19로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의심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참가 부스 먹거리 사전 품평회 개최

진안군은 오는 10월 3~6일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열리는 '2024 진안홍삼축제' 참가 먹거리 부스에 대한 음식 품평회를 개최했다.

26일 군 산악초터에서 열린 이번 품평회는 축제의 중요한 요소인 먹거리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품평회에서는 사전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9팀의 부스 참가자들이 나서 홍삼 김치, 홍삼 수육, 홍삼 호박 전 등 총 32개의 홍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였다.

또한 음식 관련 전문가, 축제추진위

원회, 실무추진단, 군의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항목은 맛, 양, 가격, 위생, 음식 특색 등 8가지 항목으로 평가했으며, 심사위원들은 준비된 먹거리를 시식하면서 가격의 적정성, 품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참여 부스들에게 제시했다.

김정배, 우덕희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장은 "진안홍삼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공유누리 이용하세요!"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위한 목록 재정비 눈길

무주군이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공개방자원 포털 '공유누리' 서비스 활용을 통한 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품 중심으로 목록을 재정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무주군은 '2024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목록을 정비 및 현행화했으며 신규 자원을 2024년 중점지원 중심

으로 발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지역 내 각 시설 내 영상회의실과 강의실을 비롯해 야외 운동기구,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 여가 활동 및 생활 밀착 자원까지 신규 등록하는 등 주민들의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누리(eshare.go.kr)'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데



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로, 공공자원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공유누리 누리집을 비롯한 앱 등을 통해 검색·확인·예약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제1차 장수군 먹거리 위원회 개최

장수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장수군 먹거리 위원회는 장수군 먹거리통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이다.

다양한 먹거리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먹거리 정책 수립 및 지속적인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장수군 푸드플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나영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푸드플랜의 이해와 먹거리 위원회 역할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조장호 농산유통과장은 "2021년 푸드플랜 계획 수립 이후 멈춰 있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제1차 장수군 먹거리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첫발을 내딛었다"며 "먹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장수군민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활성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 기업 맞춤형 채용행사 개최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는 26일 진안읍 사봉팔달센터에서 구직자와 기업 간의 현장 면접 채용행사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채용행사는 진안군일자리센터와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사전협의를 통해 기업 맞춤형 채용행사로 기획했으며 채용행사를 통해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은 캐서, 진열원, 정육원 등 7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9월 초 진안로컬푸드 진안점을 오픈을 앞두고 진안군 일자리센터는 8월 초부터 구직자들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접수를 받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이력서 컨설팅, 현장면접, 취업 스토크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진안=우태만 기자